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략 머리맞대

전라남도는 26일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문가 포럼'이 열려 특화단지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평가 대응 방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정완 광양시 부시장, 전문가, 기업,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정 공감대를 넓혔다.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 거점으로, 포스코퓨처엠 등 포스코그룹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50여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고, 112개사·5조 3천724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수요도 잠재해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광양만권 일원 2천 826만㎡(855만 평)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2조 8천452억 원을 들여 미래첨단국가산단 등 7개 산단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이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 경과와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박현중 조선대학교 교수가 '차세대 전고체전지 및 페이퍼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가 'K-배터리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특화단지 지정 전략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전남도, 전문가 포럼서 추진현황 공유·평가 대응 방향 등 논의



참석자들은 광양만권이 항만과 산업단지, 철강·화학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원료 확보에서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고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폭넓게 모색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남의 산업 기반과 광주의 연구개발-인재양성 역량을 연결해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비전을 보여주는 대표 사업이 될 것"이라며 "광양만권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발표평가 등 공모 진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정부·국회 건의와 대외 홍보를 지속해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 접근성 높인다

전라남도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와 함께 26일 담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26 해피BUS데이 발대식'을 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시군, 농협이 협력해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7개 시군 127개 읍면에서 총 70회 운영해 3만여 명에게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약계층 등이며,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담양서 해피BUS데이 발대식... 양·한방·치과 진료 제공

올해 127개 읍면서 70회 3만명에게 의료 서비스 지원

농작업 질한 검진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부 시군에서 비대면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대학과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이정국 담양부군수, 장병영 담양군수,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설승환 원광대학교 장흥통합병원 사무국장, 정은성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

다. 발대식은 고고장구단과 평양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사랑의 쌀 전달식, '희망드림 행복농촌' 나무 건강열매 달기 퍼포먼스, 의료현장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양·한방 진료와 구강검진·치과치료, 검안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지역 봉사단체와 순천제일대 재학생들은 중식 지원과 사진 촬영, 네일아트 재능기

부 등으로 힘을 보탤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피BUS데이 발대식을 계기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농촌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전남·광주,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공동 진출 농수산물 생산·제조기업 10개사 참가 1천만달러 목표

전라남도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을 앞두고 첫 수출 협업사업으로 해외시장 공동 진출에 나선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인근 농타부리 임팩트(IMPACT) 전시장에서 열리는 타이팩스(Thaifex) 박람회에 '전남·광주 수출 통합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상생협력 모델로, 두 시·도의 수출역량을 결집한 첫 번째 공동 해외마케팅 사례다.

통합관은 전남 6개, 광주 2개, 순천시 2개 등 총 10개 부스로 구성되며, 광주·전남 농수산물 생산·제조기업 10개 사가 참가한다. 김, 전복, 냉동식품, 전통식품 등 지역 대표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억 7천만 원 규모로 전남도, 광주시, 순천시가 공동 부담하며 참가 기업에 부스 임차와 장치비,

항공료,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수행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맡는다. 태국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된다. 2025년 전남의 태국 농수산물 수출액은 1천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광주는 300만 달러로 1천722% 급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식품박람회에서 바이어 상담 150건, 상담액 1천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계약 등 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출 통합관 운영은 행정통합 시대를 대비한 상징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두 시·도의 수출역량과 정책 지원을 결집해 아세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통합형 수출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전남 소비심리 한 달 새 '뚝'... 경기·고용 전망 동반 악화

소비자심리지수 110.1... 경기·취업 전망 큰 폭 하락, 물가 상승 우려 확대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소비심리가 한 달 새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고용 전망이 동시에 악화한 가운데 물가 상승 우려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전월(115.7)보다 5.6 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107.0으로 전월(112.1) 대비 5.1p 떨어졌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주요 6개 지표를 중

합해 산출한다. 기준값인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3월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악화 됐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5로 전월보다 2p, 생활형편전망지수는 100으로 3p 각각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101)는 4p, 소비지출전망지수(113)는 2p 떨어졌다.

특히 경기 인식 지표의 하락 폭이 컸다. 현재 경기판단지수는 91로 전월 대비 9p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지수도 98로 10p 하락했다.

취업기회 전망지수 역시 93으로 8p 낮아졌다.

가계 저축 여려도 줄어든 것으로 예

상했다. 현재 가계저축지수는 94로 3p 하락했고 가계저축전망지수도 98로 3p 떨어졌다.

현재 가계부채지수(102)와 가계부채전망지수(96)는 각각 2p 하락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물가수준 전망지수는 139로 전월보다 4p 상승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86으로 4p 하락했고 임금수준 전망지수는 117로 4p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도시 가구 600가구(응답 528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우편과 전자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 인터뷰 방식을 병행했다. /우인 기자

전남도-하와이, 문화·관광·경제 분야 등 협력 기반 마련

포럼서 유기농업·재생에너지·농수산물 수출 전략 소개

전라남도가 하와이 바이오경제 이행포럼 참가를 계기로 미국 하와이 주정부·의회와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농수산물 수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참여를 연계해 문화·관광 협력도 넓혔다.

전남도는 지난 18일까지 3일간 하와이에서 열린 '제12회 하와이 바이오경제 이행포럼'에 참가해 저탄소 유기농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 농수산물 수출 전략을 소개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참여를 적극 홍보했다. 포럼 공동위원장 '제니스 고'를 전남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 친환경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 채널 구축 기반도 마련했다.

전남도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하와이 주정부와 상·하원의원, 관광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방문단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참가한다.

대표단에는 하와이 전통 민속공연인 '홀라춤' 공연단도 포함돼 박람회 기간 관

람객에게 이국적 문화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수출 분야에서는 H마트, 팔라마수퍼 등 현지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상설판매장 개설 방안을 논의했다. 코나 커피협회와는 전남산 친환경 농자재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현지 차 전문매장에는 보성 녹차(말차) 납품을 협의하는 등 하와이 시장 진출 기반을 구체화했다.

전남도는 하와이 시장 진출을 위한 농수산물 상설판매장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연계한 국제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염성호 기자

www.hshi.co.kr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유조선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